

# SK그룹, 체질개선 리밸런싱 첫발... “배터리·친환경 강화”

(구조조정)

200개 넘는 계열사 구조조정 예고  
내실경영 통해 질적성장 추구 강조  
그린·화학·바이오 등 경쟁력 증진

SK그룹이 체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 자산 106조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을 탄생시킨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바로 그것이다. 또 SK온과 SK에코플랜트에 우량 계열사를 각각 붙이면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알차 친환경 사업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SK가 보유한 계열사가 여전히 200개가 넘는 만큼 리밸런싱 작업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에서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SK

SK E&S의 현금 창출 능력은 그룹에서도 손꼽힌다. SK E&S는 작년 영업이익 1조41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1조9039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SK E&S의 수익성은 SK온의 영업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어 양사 간 합병의 주요 배경이 됐다.

또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도 오랜 기간 키워 온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 하에 사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SK온은 분사 이래 10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해 누적 적자 규모만 2조 5800억원 대에 이른 상황이다.

비록 현재 실적은 미흡하나 중장기적으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이 배터리 사업을 지지하는 경영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SK온의 자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자체적인 수익성 창출 능력 확보도 필요하다. 많은 돈을 투자해도 결국 자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당장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기차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SK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전기차 구매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IPO 준비에도 매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IPO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선 SK온의 정상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SK그룹 건설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에센코어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인수 방안을 의결한다. 에센코어는 SK㈜ 산하 반도체 가공·유통 회사다.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는 SK머티리얼즈의 산업용 가스 회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련의 사업 재편이

SK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사업 중 옥석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사이지만 최근 2~3년간 친환경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2022년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테스를 인수기도 했다.

SK의 리밸런싱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 재편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SK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여개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과 원유 석유 제품 트레이딩 기업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탱크터미널 사업을 하는 SK엔텀을 합병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576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출범한 SK엔텀은 시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탱크 터미널 사업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美 허가 앞둔 ‘렉라자’... K바이오, 4세대 폐암치료제 개발 가속

브릿지바이오, BBT-207 임상 1상 HK이노엔, 비소세포폐암 신약 개발 유한양행, 렉라자 허가여부 내달 공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TKI) 계열 폐암 신약 개발에서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BBT-207’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최근 해당 임상시험에서 세 번째 용량군 투약 데이터 검토를 마치고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네 번째 용량군 투약 단계에 진입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 투약하는 약물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것이다.

이번 네 번째 용량군은 회사가 약물 유효성 확인을 기대하는 중·고용량군의 핵심 용량 범위라는 것이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측의 설명이다. 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약효 신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용량군에 더 많은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BBT-207 임상 1상 첫 투약은 지난 2023년 10월 국내 기관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3세대 EGFR TKI 치료제 중 하나 이상으로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 92명을 대상으로 개시됐다.

BBT-207은 C797S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췄는데, C797S는 3세대 EGFR TKI 치료 후 나타나는 내성 돌연변이다.

C797S 돌연변이로 인해 3세대 EGFR TKI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은 연간 약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등 신규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EGFR TKI 제제가 지속 개발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 시장에 HK이노엔은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HK이노엔은 알로스테릭 EGFR-T

KI 후보물질로 ‘IN-119873’을 연구하고 있다. HK이노엔은 해당 물질이 기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L858R 변이를 치료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K이노엔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치료제 시장 중 L858R 변이는 약 40%를 차지한다.

‘IN-119873’은 EGFR 단백질 구조 중 알로스테릭 자리를 공략해 EGFR을 저해하는 기전을 갖춰 기존 치료제들과 차별화했다는 것이 HK이노엔 측의 설명이다. 특히 HK이노엔은 ‘IN-119873’의 차별점을 기반으로 보다 높은 안전성을 갖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HK이노엔은 해당 물질과 3세대 EGFR TKI의 병용 요법에도 주력하고 있다. HK이노엔은 ‘IN-119873’ 비임상 연구 완료 후 연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표적할 신약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EGFR TKI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글로벌 시장 재편을 노리고 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안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말) 병용요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여부가 오는 8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이노베티브 메디슨(전 안센)은 지난 2023년 12월 미국 FDA에 해당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단독요법으로는 승인받은 바 있다. 향후 두 약물의 병용요법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하는 경우, 유한양행은 올해 4분기 중 안센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60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또 유럽, 중국 시장에서도 출시돼 추가적인 마일스톤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창하 기자 mlee236@

## 라인야후 사태 소강국면... 소프트뱅크 “자본관계 재검토 포기”

네이버와 50%씩 지분 유지  
한국 정부·여론의 반발 영향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국면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재검토 작업을 단기적으로 단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기존대로 네이버와 50%씩 유지한다.

보도에서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네이버와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으나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후 ‘일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주식 매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한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

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한다. 현재 라인은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톡에 견주어지는 수준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다. 지분 상실에 따른 네이버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측은 그동안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 매각 의사가 없음을 강경히 밝혔다. 2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에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측은 이번 자본관계 재검토

단념의 이유로 한국 국내 여론의 악화와 네이버 및 라인야후 노동조합의 반발, 한국 정부 및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는 라인야후를 둘러싼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이 자본관계 재검토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데에는 ‘외교적 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권고했던 일본 총무성도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인다. 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야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행정지도 보고서와 관련해 “지도사항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

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쓰모토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관계사인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 내용에는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서현 기자 seoh@